

NEW WORDS

한국어감추기

1. relationship	관계	2. envoy	사신	3. demand	요구하다
4. surrender	항복	5. battle	전투	6. defeat	물리치다
7. peaceful	평화스러운	8. friendly	우호적인	9. invader	침략군
10. defend	방어하다	11. enemy	적	12. northern	북부의

NEW EXPRESSIONS

한국어감추기

1. Athens and Sparta	아테네와 스파르타	2. marathon battle	마라톤 전투
3. Peloponnesian War	펠로폰네소스 전쟁	4. for ~ years	~ 년 동안
5. for some time	얼마 동안	6. be not aware	인지하지 못하다.

READING

Reading 1	Greece had cities called Athens and Sparta. The Athenians and the Spartans were not in a good relationship. They fought for a long time and repeated the ceasefire. Meanwhile, the Persians began to invade Greece.
Reading 2	The Persian king sent an envoy to Greece to demand surrender. The Athenians and Spartans were angry. They captured the envoy and put him in the well Eventually the Persians attacked Greece. Athens and Sparta stopped each other’s fights and fought for 60 years against Persia. One of the most famous battles in this war is the marathon battle.
Reading 3	The marathon battle was not the end of the battle. The final battle was a battle in the big sea called Salamis. Greece defeated Persia in this battle. After the Battle of Salamis, Persia eventually gave up attacking the Greek. For some time Greece was peaceful.
Reading 4	Athens and Sparta, who defeated Persia, no longer needed to fight. However, they were afraid that each other would become stronger. Eventually, their friendly relationship broke down and fought for 25 years. This fight is called the Peloponnesian War.
Reading 5	The long Peloponnesian War killed many young Athenians and Spartan soldiers. Now there were not many soldiers in Greece those who could defeat invaders. They didn’t even have the power to defend themselves. They were not aware that a very powerful enemy was looking for their attack. It was Macedonia in northern Greece. King Philip of Macedonia led the army and conquered the Greek cities.

해석

Reading 1	그리스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었다. 아테네 사람들과 스파르타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싸우다 휴전하기를 반복했다. 한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입하기 시작했다.
Reading 2	페르시아 왕은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 그리스로 사신을 보냈다. 아테네 사람들과 스파르타 사람들은 화가 났다. 그들은 사신을 붙잡아 우물 속에 처넣어 버렸다.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공격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의 싸움을 멈추고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60년간을 싸웠다. 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마라톤 전투이다.
Reading 3	마라톤 전투가 전투의 끝은 아니었다. 마지막 전투는 살라미스라는 큰 바다에서의 싸움이였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 공격을 포기했다. 얼마 동안 그리스는 평화로웠다.
Reading 4	페르시아를 물리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상대가 강해질까 봐 두려웠다. 결국 그들의 우호적인 관계는 깨지고 25년 동안 싸웠다. 이 싸움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부른다.
Reading 5	기나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많은 아테네 젊은이들과 스파르타 병사들이 죽어갔다. 이제 그리스에는 다른 침입자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적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것은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였다. 마케도니아의 필립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 그리스의 도시들을 정복해 버렸다.